

CONNECT

連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2017 강원건축문화제

GANGWON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일시: 2017년 11월 17일(금)~11월 20일(월) 장소: 강릉 명주예술마당

강원도건축사회 건축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유의 역사적 맥락과 정체성을 접목한
강원도의 건축문화와
건축경관이 함께하는 도시디자이너로서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막식 2017년 11월 17일 11:00
명주예술마당 컨벤션 홀
개막식, 시상식, 전시장 관람

건축강연회 2017년 11월 17일 13:00~15:00
명주예술마당 컨벤션 홀

전시 2017년 11월 17일~20일
회원작품전
회원건축사진전
학생작품전
어린이 건축물그리기대회수상작
명주예술마당 컨벤션 홀

도민참여행사
건축문화탐방
2017년 11월 18일(토)~19일(일)

어린이 건축물그리기대회
2017년 10월 14일(토) 13:00~17:00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주관: 강원도건축사회 강릉지역건축사회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사)대한건축학회 강원지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최: (사)한국예총 강원도연합회 강릉지회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사설

SOC 예산 급감 이유 납득 어려워

-강원도사회간접자본 예산 급감, 미래예상 못한 정책 실조

강원도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국비가 급격 감소하게 됐다는 얘기에 우선 걱정부터 드는 것은 그로 인한 지역 경제의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지난 여러 해 동안,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으니, 이는 곧 복지예산 등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현상으로 보면서 이에 특히 주목하는 까닭은 강원도의 경우 그 감소의 폭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이 64.8%, 부산과 경남권이 43%, 충청권 42.4% 등의 순으로 예산이 줄었다. 반면 수도권은 8.2%로 권역 중 가장 낮다. 이에 비해 강원권 SOC사업 예산은 3182억 9400만 원으로 전년 확정치 1조 376만 5600만 원에 비해 무려 69.3%가 줄며 전국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다.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가막힌 현실이다.

그리하여 즉각 드는 생각은 강원도에 대한 예산 확대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에 두 가지 원인이 떠오른다. 하나는 수도권 중심주의라는 정부 당국의 고착된 시선 및 고정적인 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강원

도의 무능한 대처다. 정부의 대강원도 인식 및 이해가 여전히 전근대적이라는 점, 그럼에도 강원도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내외적 요인에 의해 결국 전국 최대 예산 하락 현상을 맞고만 것이다.

어찌하여 이런 부정적 일이 벌어질 것에도 정치권과 행정부 대비 대응치 못했는지 묻는다. 이 분야에 대한 '예산 절벽'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지 아니했는가. 더구나 내적 정황으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SOC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그럼 다음 사업, 이를 테면 계속 사업이나 신규사업, 특히 동해안 항만 보완, 동해선 철도 복원, 제2경춘국도와 중앙고속도 철원 연장 등 교통망 관련 다양한 사업이 시작돼야 하는데, 이를 투철히 살폈는지 묻게 되지 않는가 말이다.

내년 도내에 이렇다 할 대형 SOC사업 계획이 없다면 정부 당국이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없다. 12월에 이른바 '예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강원도는 패자의 위치에서 닦은 날아가고 지붕만 쳐다보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남은 한 달여 동안 마땅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간 건설사업이 지역 경제 동향에 결정적임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걱정스럽거니와 진정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내년 국내수주 133兆… 15% 감소”

건산연, 2018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올해보다 15% 감소한 133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전국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주택 인허가와 분양 물량도 일제히 감소하는 등 ‘주택 3년 호황’이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8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건산연은 국내 건설경기가 민간 주택 수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하락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집값·전셋값 0.5% 하락

분양물량 올해보다 9만가구 급감

내년이후 2~3년간 불황 지속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133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수주 전망치(156조5000억원)보다 23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역대 최대치였던 2016년(164조9000억원)을 전후로 지난 3년간 지속된 수주 호조세가 꺾이는 셈이다.

민간수주(91조3000억원)는 16.9% 줄어 감소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공공수주(41조7000억원)도 10.5%

감소를 전망했다. 내년 정부 SOC 예산안이 역대 최대폭인 20%(4조4000억원) 삭감된 것이 컸다.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도 큰 폭으로 둔화(7.0%→0.5%)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홍일 건산연 경영금융연구실장은 “건설수주 하락세가 내년에 본격화되고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2019년 불황국면 진입에 대비한 경기 경착륙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는 하락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건산연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 각각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매매가격은 수도권은 포함, 지방은 1.0% 하

락을 전망했다. 특히 경남, 울산 등 경기가 어려운 지역의 주택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서울은 거래가 다소 줄더라도 가격은 강보합세를 점쳤다.

분양물량은 올해(34만가구)보다 26.5% 감소한 25만가구로 예측했다. 인허가 물량은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 탓에 올해(47만가구)보다 34% 급감한 16만가구로 예상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준공 증가 등 리스크 확대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관망세는 강화되고 신규 매수자는 크게 줄어 가격보다 거래량과 분양물량 감소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형기자 kth@